# 흥륜사, 혜해 스님 사리친견 법회 봉행

## 3월 19~31일까지 흥륜사 금당서
## 녹색 치유사리 등 200여 과 친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부대중, 봉안 전 사리 친견요청**
**남북 평화 염원 담은 사리함 제작**
**수행 가르침 위해 금당 선방 봉안**

조계종 원로 비구니 혜해 스님의 사리를 친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주 흥륜사(주지 법진)는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경내 금당에서 '보주당 혜해 선사 사리친견 법회'를 봉행한다.

원적 2주기를 앞두고 마련된 사리 친견 법회는 사리 봉안 전에 마지막으로 사리 친견을 원하는 불자들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대중은 사리친견법회를 통해 스님의 사리를 친견하며 혜해 스님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19일 봉행된 법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삼귀의 및 반야심경, 주지 법진 스님과 사리함을 제작한 최상기 작가의 인사말, 친견 순으로 짧게 진행했다. 법회에는 주지 법진 스님과 선방 입승 법경 스님을 비롯해 수좌 스님들과 불자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법진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다. 이런 시간에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모든 대중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사리 친견 법회는 여러 불자들의 요청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큰스님을 마지막으로 뵙는 심정으로 모였고 큰스님을 향한 그리움이 가득한 자리이다. 하심과 정진을 당부한 스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리함을 제작한 최상기 작가는 "혜해 스님의 사리함을 제작하면서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큰스님의 염원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흥륜사가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기점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며 "작업을 하는 동안 믿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혜해 선사의 사리는 친견법회가 끝난 후 사리장엄구에 봉안된다. 스님의 유지에 따라 금강산으로 이운할 스님의 사리


경주 흥륜사는 3월 19일 경내 선방 금당에서 '보주당 혜해 선사 사리친견 법회'를 개최했다.

3과와 법골 등은 별도로 봉안된다. 4월 24일 오전 11시에 경내 금당에서 혜해 스님의 사리를 흥륜사 금당에 모시는 낙성식을 봉행한다.

혜해 스님은 2020년 5월 29일 세납 100세 법랍 77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으며, 참선 수행과 대중을 교화하는 데 헌신했다. 입적 당시 혜해 스님의 법구에서는 치유사리로 불리는 녹색사리 등 200여 과의 사리가 나왔다.

선방 입승 법경 스님은 "스님의 사리 가운데 녹색 사리는 티베트 따라 보살님 이후 처음 나왔다. 녹색 사리는 치유의 사리로 불린다. 스님의 사리함을 선방에 모시는 이유는 더욱 정진하라는 스님의 당부를 선방에 새기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흥륜사는 사리함을 흥륜사 참선 수행 공간인 금당에 봉안하고 또 사리 3과와 법골을 보관 후 금강산에 봉안할 계획이다. 혜해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에서 출가했으며 남북 평화를 기원하며 북한 금강산 신계사 복원 당시 1000일 동안 정진 수행했다.

사리함은 혜해 스님의 정진, 인욕, 근검, 하심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소박하지만 세밀함과 부드러운 느낌을 함께 담고자 노력했다. 사리함은 사리병, 사리호, 사리함(내함), 원형합, 사리함(외함), 팔각함, 사천왕상(사천왕이 새겨진 사리보관함) 등 총 일곱 겹으로 구성된 함(函)으로 만들어졌다. 사리함의 재료는 금, 은, 동이며 사리함을 장식하는 장엄물은 자개, 숯, 열매, 나무 등을 깎아 보석처럼 보이도록 가공해 붙였다. 특히 사리를 직접 보관하는 사리병은 작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리병은 순금으로 제작됐으며 아래 바닥 부분은 순은을 연화좌대로 꾸며 장식했다. 사리병을 닫는 뚜껑은 자개로 연꽃 봉우리로 만들어 씌웠다. 사리병은 향나무를 가공해 만든 보조병에 담은 뒤 은으로 제작한 사리호에 담는다. 그 외 사리호 및 사리함 내함과 외함 등에는 혜해 스님의 유년 시절과 해탈을 상징하는 언덕을 넘어가는 모습, 성철, 향곡, 월산, 서옹 스님과 담소하는 모습을 새겼다. 아울러 남과 북, 흥륜사와 신계사 그리고 경주 남산과 금강산의 조화를 상징하는 의미와 금강산 신계사에 머물며 법기암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담았다.

## 해동용궁사, 울진산불 복구 지원금 전달




해동용궁사(주지 연규)가 3월 18일 울진군청에서 '울진산불재해 복구 지원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해동용궁사는 울진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 23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주지 연규 스님이 기부한 1000만 원과 해동용궁사 신도 및 직원들이 모은 후원금 1100만 원, 의왕 용화사 신도회가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 100만 원, 불교용품 판매 기업 선행 임직원들이 모은 후원금 100만 원을 모았다.

주지 연규 스님은 "해동용궁사는 현재 울진 산불 재해 복구를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 나눔을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을 입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울산 정관암, 제1회 화전놀이 개최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이 3월 22일 경내에서 '제1회 화전놀이'를 개최했다.

화전놀이는 전통 봄맞이 화전 만들기를 통해 한해 안녕과 마을의 화목을 도모했던 조상의 지혜를 이은 행사이다. 정관암은 화전놀이를 통해 지역민들과 화합하고 코로나로 인해 지친 시민들이 봄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기원했다.

행사에는 정관암 주지 대활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이국세 정관암 신도회장, 서범수 국회의원, 정은영 울산불교문인협회장, 서진길 울산문화원 원장, 황정자 울산다도예절협회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일상회복 기원, '불기2566 부산연등축제'

## 연등문화제 및 연등회 등 행사 다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3월 21일 부산시민공원 내 다솜갤러리에서 '부산연등축제 복원 전통등 특별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연등축제의 출발을 알렸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표어 아래 열리는 '불기 2566 부산연등축제'는 크게 '부산연등문화제', '부산연등회' 그리고 '복원 전통등 특별전'으로 진행된다.

△**'부산연등축제 복원 전통등 특별전'**에서는 전통등 40여 점을 선보였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사찰 범어사의 가람배치를 닥종이로 상세히 재현한 공예작품을 선보였다. 부산연등축제 복원 전통등 특별전은 4월 17일까지 이어지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보운 스님은 "오늘 개막하는 특별전시는 전통기법을 활용한 닥종이 공예로 한국의 대표적인 가람배치 작품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전통사찰의 의미와 위치 등을 친숙하게 접


부산불교연합회가 3월 21일 부산시민공원 내 다솜갤러리에서 '부산연등축제 복원 전통등 특별전'을 개막하며 부산연등축제 시작을 알렸다.

근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연등문화제**는 송상현광장 일대에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17일간 이어지며 대형 전통등 전시를 중심으로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개막점등식은 4월 22일 오후 7시에 열리며 불교, 동화, 캐릭터 테마 전통등을 비롯해 대형등 약 70여 점과 범어사 7층 석탑등과 삼광사, 진각종 등에서 출품한 사찰등을 비롯해 각종 구조물(큐브등)이 전시된다. 체험행사는 종단 및 사찰, 단체에서 참가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불교 및 전통문화를 알리는 전통문화한마당(4월 23~24일)과 소원등 달기(4월 22일~5월 8일), 무차만발공양(5월 1일 오후 4시), 무료스냅사진 체험(4월 22일~5월 8일) 등이다.

△**부산연등회**는 4월 30일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 집결은 오후 4시이며 5시부터 연등회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부산연등회 행사가 이어진다. 먼저 1부에서는 육법공양과 영산재, 관불의식이 이어지며 2부에서는 봉축연합대법회를 봉행한다. 봉축연합대법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태민안과 부산발전을 기원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발원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호기놀이와 연등행렬이 진행된다. 호기놀이는 문헌과 범어사 팔상전 벽화를 근거로 재현한 전통놀이다. 연등행렬은 종단, 사찰, 단체에서 준비한 화려한 의상과 율동을 보여주며 등을 든 연희단이 포퍼먼스와 함께 행렬을 진행한다. 연등행렬 구간은 약 3km이며 부산시민공원 북문을 출발해 교육청 앞을 지나 하마정교차로, 양정교차로, 송공삼거리를 통과한 후 송상현광장 전포로에서 회향한다.

보운 스님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표어처럼 부산연등축제는 부산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부산연등회, 부산연등문화제를 비롯해 전통등 강습회 등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부산연등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불자들에게 우리 불교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 매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천불정사, 노유자복지시설 착공

부산 인재불사 도량 천불정사(주지 고담)가 3월 22일 경내에서 노유자복지시설 착공식 및 안전기원재를 봉행했다.

노유자복지시설은 노약자와 아동,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3층 규모이며 시설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천불정사는 부산 중심 번화가인 부산대 인근에 위치해 접근도가 편리해 서비스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복지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아울러 천불정사는 지역 부산대에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및 쌀 나눔 등을 실천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노유자복지시설을 통해 천불정사는 나눔 뿐 아니라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로 더 발전한다는 의지다. 8월 중 완공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행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경 선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